

부모관계가 전문계 고등학생의 교과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인문계 고등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김 경 식¹⁾ · 이 현 철²⁾

요 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자료를 활용하여 상급학교 진학으로 그 진로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교과 흥미도 결정에 대한 다양한 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부모관계에 집중하여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교과 흥미도와 관련된 맥락을 인문계 고등학생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교과 흥미도와 관련된 측면을 살펴보면 성별, 부학력, 월평균소득은 전문계 고등학생의 교과 흥미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성별, 부학력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측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겠다.

학생 개인수준 항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자아인지, 고민, 수업태도, 공부이유 및 포부 등의 변인의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이들 변인 모두 교과 흥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인문계 고등학생들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학교 특성에 따른 차이에 관계없이 고등학생들의 교과 흥미도는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을수록, 현재의 삶을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할수록,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그리고 분명한 학업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수록 높아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학교관련 변수들이 투입될 때, 전문계와 인문계 모두 개인 특성의 영향력은 상실되었지만 전체 독립변인들의 변량은 크게 증가되었다. 특히 전문계는 그 변량의 증가 폭이 38.3%로 인문계의 32.5%보다 컸으며, 학업성취가 교과 흥미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들의 교과 흥미도에 대한 학교 시설 및 환경과 학업성취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아울러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이들 변인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관계의 경우, 전문계에서는 부모시간공유와 부모압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인문계에서는 부모시간공유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1)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I.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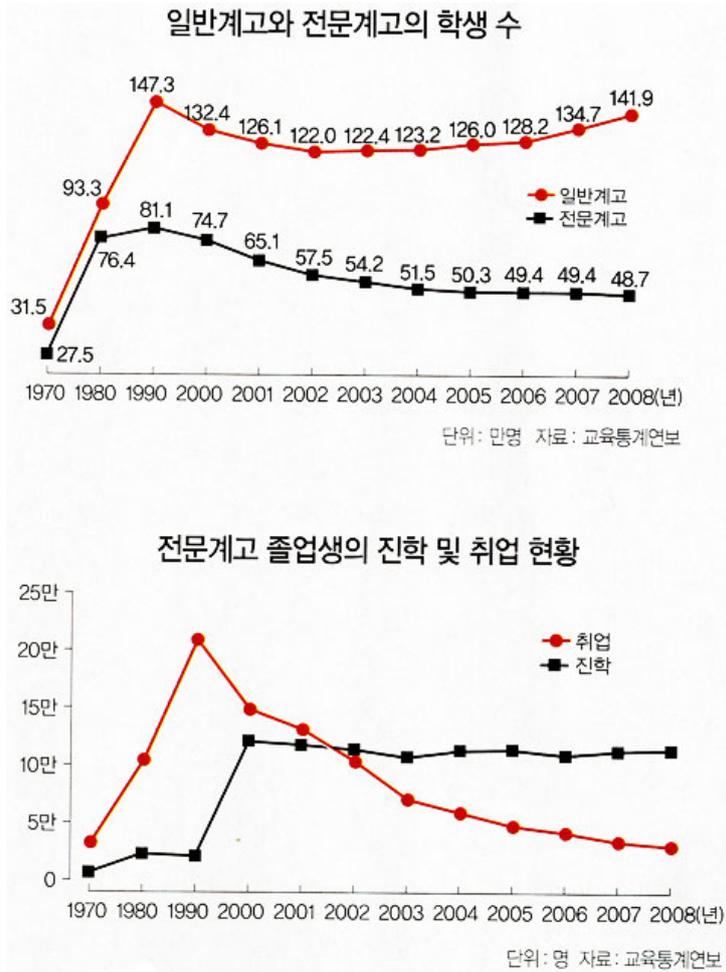
과거 한국사회의 경우 대학 입시위주의 교육과 정책으로 대변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다른 진로 결정을 염두해 둔 고등학생들에 비하여 강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상황은 일반계 고등학생에게만 해당되는 특정한 교육적 담론이 형성되어졌다는 의미이며, 그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관심은 교육분야에서의 비주류적인 삶을 지니게 하였다. 지난날 인문과 실업을 균형을 강조하였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은 일반 고교와 고등 교육만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변화됨으로써 실업 교육의 추락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며, 전문계 고등학생들로 범주화된 사회적 믿음과 고착된 차별은 전문계 고등학생들을 더욱더 비주류로서의 역할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교육선발의 큰 틀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류에서 벗어나 주변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전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지원하기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낙오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고, 전공의 선택도 인기도에 따라 좌우되어 중학교 내신성적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적성과 동떨어진 전공에 입학하게 되고 적성에 맞지 않아 괴로워하며 학습의욕을 상실할뿐만 아니라 기능습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실습에 흥미를 잃고 낙오자고 되고 만다(김경식, 1995).

이렇듯 중학교 내신성적이 낮은 학생이 진학함에도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갈수록 급증해 1970년 9.6%에 불과했던 2008년 현재 72.9%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50.2%에 이르렀던 취업률은 19%까지 추락하였다. 대학에 진학하는 전문계고 졸업생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건 지난 1996년이었으며, 당시 교육개혁위원회가 실업계고 육성책으로 내놓은 ‘신 직업교육 체제 구축방안’ 이후이다. 실업계고를 졸업하고 원하면 대학교에도 가는, 이전까지의 실업계고 졸업 학력이 직업교육의 최종 관문이던 방식에서 크게 방향 전환을 하는 내용이었다(주간조선 2089호, 2010년 1월 18일). 또한 다양한 4년제 대학교와 전문화된 대학의 신설 그리고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에 따른 원격대학의 등장으로 고등교육의 광범위한 팽창은 학생 정원의 폭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로만 충당 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학교 간 학생 유치의 과도한 경쟁의 시대를 실제로 체험하고 있다(이현철, 2006). 이와 함께 현 정부의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의 실질적인 강조와 지원(‘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2010년 1월 4일)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구성원들의 변화와 단지 공부를 못하거나 사회경제적 지원의 낮음으로 진학하게 되는 과거의 현상과는 다른 국면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이 보편화됨으로써(최동선, 2009) 전문계 고등학교의 목적이 완성교육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같이 준비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적합할지

도 모른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은 전문계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그리고 전문계 고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노력, 관심 그리고 준비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자녀-부모관계의 영향력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술한 내용들을 거시적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진로 교육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학교현장을 반영한 실제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며, 실제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인식과 수준을 선형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료출처: 주간조선 2089호)

〈그림 1〉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학생 수 및 전문계고의 진학 및 취업현황

일반적으로 교과에 대한 성취도는 교과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과 비례관계에 있다 하지만 교과에 대한 높은 성취도만이 그 교과의 창의력 신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대한 높은 흥미와 자신감이 동반되어야 그에 대한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다(박종원, 2000). 그동안 교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학업성취에 대한 독립변수로만 다루어져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의 영역은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그 의미가 축소되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윤미선, 2007). 이는 교과 흥미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층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

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과의 흥미는 학생들의 개인 내재적 요인으로 지적능력, 적성, 선행학습 등과 같은 인지적 요인과 학습동기, 흥미, 태도, 자아개념, 성격특성 등과 같은 정의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학습자가 어떤 학습과제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 과제에 대한 흥미와 함께 적절한 의욕이 필요하고 그것을 지속시키는 내재적 동기 유발 요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학업성취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상대적인 영향력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귀속적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간-환경 상호작용 테두리 안에서 사회심리적 환경이 더 강력한 변수로 작용한다(Moos, 1973)는 주장에서 보듯이 그 매개 변수로 사회심리적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Blau와 Duncan의 지위획득모형을 보다 정교화한 Wisconsin 모형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은 중요한 타자 변인을 매개로 하여 학생의 교육기대와 포부 및 교육성취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관계를 맺는 인간관계는 그들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부터 우리 학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학에서 비교적 최근에 구성된 개념이지만, 지난 20년간 사회학 분야를 뛰어 넘어 다른 분야로 발전하여 매우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 되었다(Portes, 2000).

특히 부모의 교육적인 관심과 참여는 가정에서 자녀의 행동을 구속하는 압력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녀의 잠재능력을 개발시키는 기회와 조건을 제공하므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가 아동의 학업적 영역에 관여하는 것은 아동에게 학습과정의 계획, 모니터링, 조절 등과 같은 메타인지적 기술뿐만 아니라 수용적인 언어 능력과 음운론적 인식 같은 인지적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동의 성취를 향상시킨다. 또한 부모의 관여는 학업추구를 위한 내적 동기, 학업수행에 대한 통제감, 학업적 유능감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같은 요소를 아동에게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아동의 성취를 고양시키게 된다(Pomerantz, Moorman, and Litwack, 2007).

교과 흥미도 또한 학업성취와 같이 학습자, 가정, 학교 관련 변인들이 중첩적인 영향으로 형성된다 할 것이다. 그동안 가정 내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을 통해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가정 관련 변인의 영향을 엿볼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도부터 전국 중학교 3학년생,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 각각 2,000명과 학교 행정가 및 교사 그리고 가구 등을 종단적으로 조사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자료를 통하여 상급학교 진학으로 그 진로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교과 흥미도 결정에 대한 다양한 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부모관계에 집중하여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교과 흥미도와 관련된 맥락을 인문계 고등학생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도부터 전국 중학교 3학년생,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 각각 2,000명과 학교 행정가 및 교사 그리고 가구 등을 종단적으로 조사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교과 흥미도 결정에 대한 부모관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4차년도 조사에 신규로 등록된 학생들이 포함되었으며, 가구조사지의 응답을 매칭시켜 최종 1,393명을 연구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전문계 고등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료를 구성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배경 변인별 분포는 <표 1>과 같으며, 결측치로 인해 각 항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표 1> 연구대상자 변인별 분포

변인 유목		전문계			인문계		
		빈도(명)	비율(%)	계(명, %)	빈도(명)	비율(%)	계(명, %)
성별	남학생	769	55.2	1,393 (100)	734	46.4	1,583 (100)
	여학생	624	44.8		849	53.6	
월평균소득	100만원이하	145	16.5	880 (100)	57	4.6	1,248 (100)
	101만원-200만원	397	45.1		188	15.1	
	201만원-300만원	218	24.8		301	24.1	
	301만원-400만원	59	6.7		268	21.5	
	401만원 이상	61	6.9		434	34.8	
부학력	미취학	4	.4	1,014 (100)	3	.3	1,086 (100)
	무학	32	3.2		11	1.0	
	초등학교	117	11.5		51	4.7	
	중학교	197	19.4		79	7.3	
	고등학교	559	55.1		544	50.1	
	2-3년제	34	3.4		74	6.8	
	4년제	60	5.9		278	25.6	
	대학원(석사)	10	1.0		27	2.5	
	대학원(박사)	1	.1		19	1.7	

2. 연구 모형 및 변수

본 연구에서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교과 흥미도 결정에 대한 부모관계의 영향과 인문계 고등학생들과의 비교논의를 위해 중다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의 경우 전문계/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교과 흥미도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인들은 전문계/인문계 고등학생의 개인 내·외적 요인들을 투입하였다. 해당 변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전문계/인문계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변수 특성

변수	전문계			인문계			변수특성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성별	1,393	.55	.49	1,583	1.54	.49	더미변수, 남학생=1, 여학생=0
월평균소득	880	5.28	.53	1,248	5.84	.60	로그변환
부학력	1,014	4.64	1.12	1,086	5.51	1.31	미취학, 무학, 초·중·고,2·3년제, 4년제, 대학원(석사, 박사)
수업태도	1,391	12.40	3.19	1,582	14.32	3.01	평소 수업태도 문항(Likert 5) 합산
공부이유 및 포부	1,393	36.49	5.94	1,582	36.92	5.32	자신이 공부를 하는 이유와 포부 문항(Likert 5) 합산
고민	1,393	15.06	3.56	1,582	14.75	3.28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 문항 합산 (없다1/보통2/심각3/매우심각4)
자아인지	1,393	10.62	2.26	1,583	11.27	1.95	자신에 대한 질문 문항(Likert 5) 합산
학교시설	1,356	21.82	4.75	1,583	18.87	3.99	학교의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문항(Likert 5) 합산
교사	1,393	12.51	3.35	1,583	12.47	3.16	담임선생님에 대한 문항(Likert 5) 합산
성취수준	1,386	23.43	5.30	1,573	25.17	4.86	교과목 성취 인식 수준 합산
부모의 방과후 인지	1,213	6.81	1.68	1,508	7.55	1.44	자녀의 방과후 부모의 인지
부모의 시간공유	1,212	5.62	1.77	1,507	7.29	1.42	자녀와의 시간
부모의 기대	1,213	6.03	1.78	1,508	6.29	1.75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부모의 강조	1,210	6.97	1.60	1,508	5.50	1.74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압력
흥미	1,386	26.89	5.85	1,566	28.94	5.29	교과목 흥미 인식 수준 합산

중다회귀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로는 학생들이 응답한 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전공과 제2외국어)에 대한 흥미 수준을 합산하여 활용하였으며, 성별의 경우 더미 변수로서 연구대상이 남학생이면 1, 여학생이면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부학력은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3년제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의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학생들이 응답하여 기입한 월평균 소득을 자연로그(log)로 변환하여 연속변수로 구성하였다.

수업태도는 학생들의 평소 수업태도에 대한 문항을 설정하였는데 ‘나는 수업에 집중한다, 나는 수업에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한다, 나는 숙제를 꼬박꼬박한다, 나는 그 날 배운 것을 복습한다, 나는 앞으로 배울 내용을 예습한다’ 등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공부이유 및 포부의 경우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거우므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칭찬을 위해’, ‘친구들의 인기’, ‘경쟁상대’ 등의 공부이유와 포부와 관련된 12문항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고민의 경우 자신이 현재하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로서 ‘공부·학교 성적 문제, 진학·진로 문제, 가정의 경제적 형편, 부모님(또는 가족)과의 불화’ 등의 8문항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자신인지 변인은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의 문항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학교시설 변인은 학교의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질문 7가지를 합산하여 구성하였는데 ‘학교 건물과 교실의 상태가 깨끗하고 좋다, 학교 도서실(관)에 읽을 책이 많다, 전공실습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등의 7문항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교사관련 변수들의 경우 담임선생님에 대한 문항을 중심으로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신다,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칭찬을 자주하신다,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이해하신다, 담임선생님은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신다’의 문항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성취수준의 경우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과목의 성취수준을 각각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관계의 경우 부모의 방과후 인지, 부모의 자녀와의 시간공유, 부모의 높은 기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압력 등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의 내용을 합산하였다.

이상의 변수들 즉, 성별, 월평균소득, 부학력, 수업태도, 고민, 자아인지, 공부이유 및 포부, 학교시설, 교사, 성취수준, 부모의 방과후 인지, 부모의 시간공유, 부모의 기대, 부모의 강조 및 압력 등의 14가지 변수들을 중심으로 전문계 고등학생의 교과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과 인문계 고등학생들과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회귀방정식 모형은 다음 [그림 2]와 같으며 통계분석은 SPSS 14.0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되었다.

$$\begin{aligned}
 \text{교과목 흥미도} = & \beta_0 + \beta_1(\text{성별}) + \beta_2(\text{월평균소득}) + \beta_3(\text{부학력}) + \beta_4(\text{수업태도}) \\
 & + \beta_5(\text{고민}) + \beta_6(\text{자아인지}) + \beta_7(\text{공부이유 및 포부}) + \beta_8(\text{학교시설}) \\
 & + \beta_9(\text{교사}) + \beta_{10}(\text{성취수준}) + \beta_{11}(\text{부모인지}) + \beta_{12}(\text{부모시간공유}) \\
 & + \beta_{13}(\text{부모기대}) + \beta_{14}(\text{부모압력})
 \end{aligned}$$

〈그림 2〉 본 연구의 회귀방정식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전문계와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교과 흥미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앞서, 전문계와 인문계 학생들 사이의 독립변인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주요변수에 대한 전문계/인문계 고등학생의 평균차이 검증

변수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	P
월평균소득	인문계	5.79	.620	16.587	.000
	전문계	5.27	.531		
부학력	인문계	5.42	1.296	12.467	.000
	전문계	4.63	1.080		
수업태도	인문계	14.21	2.992	15.515	.000
	전문계	12.40	3.190		
공부이유 및 포부	인문계	36.83	5.258	1.620	.106
	전문계	36.49	5.946		
고민	인문계	14.75	3.262	-2.418	.016
	전문계	15.06	3.568		
자아인지	인문계	11.20	1.967	7.139	.000
	전문계	10.62	2.267		
학교시설	인문계	18.80	3.906	-17.560	.000
	전문계	21.82	4.758		
교사	인문계	12.35	3.194	-1.266	.206
	전문계	12.51	3.353		
성취수준	인문계	24.95	4.855	7.931	.000
	전문계	23.44	5.306		
부모인지	인문계	7.55	1.431	10.972	.000
	전문계	6.82	1.695		
부모 시간공유	인문계	7.21	1.394	3.679	.000
	전문계	6.98	1.599		
부모기대	인문계	6.26	1.743	3.136	.002
	전문계	6.03	1.787		
부모압력	인문계	5.50	1.738	-1.585	.113
	전문계	5.62	1.770		
흥미	인문계	28.44	5.143	7.375	.000
	전문계	26.91	5.847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공부이유 및 포부, 교사관계, 부모압력의 경우 전문계와 인문계 고등학생들 간에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으며, 그 외 변수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별히 삶의 전반적인 고민과 학교시설 환

경에 대한 인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들에서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교과 흥미도를 비롯한 독립변수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교과 흥미도에 대한 각 학교 집단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도 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이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교과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전문계 고등학생 회귀분석 결과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상수	26.91** (.235)	25.41** (2.037)	7.609** (2.499)	.791 (1.943)	.442 (1.994)
성별	-.003 (.497)	.003 (.500)	0.42 (.500)	.013 (.500)	.017 (.500)
가정배경					
부학력		-.075 (.537)	-.062 (1.127)	-.034 (1.131)	-.038 (1.137)
월평균소득		.057 (.537)	.056 (.537)	0.32 (.541)	.029 (.543)
개인특성					
자아인지			.144** (2.280)	.031 (2.281)	.013 (2.281)
고민			.080* (3.466)	.118** (3.458)	.115** (3.399)
수업태도			.254** (3.121)	.024 (3.100)	.012 (3.097)
공부이유 및 포부			.160** (5.899)	.019 (5.858)	.046 (5.854)
학교 및 환경					
학교시설				.095** (4.550)	.086** (4.503)
교사				.013 (3.346)	.002 (3.314)
성취수준				.685** (5.346)	.704** (5.291)
부모관계					
부모인지					.020 (1.668)
부모시간공유					.055* (1.627)
부모기대					.004 (1.753)
부모압력					-.086* (1.749)
Adj. R square	.000	.002	.172	.555	.570

1) *p<.05, **p<.001 2) 제시된 값은 표준화 계수이며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모델 1과 모델 2를 통해 성별, 부학력, 월평균소득은 전문계 고등학생의 교과 흥미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업성취에 대한 이들 변수들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학업성취와 교과목 흥미가 동일한 수준에 이해되기보다는 차별적인 요소로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모델 3을 통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학습자 개인수준 항목 변인을 투입하여 자아인지, 고민, 수업태도, 공부이유 및 포부 등의 변인의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이들 변인 모두 교과 흥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즉, 전문계 고등학생의 교과 흥미도는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을수록, 현재의 삶의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할수록,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그리고 분명한 학업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수록 높아짐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전문계열 고등학생들의 높은 대학 진학률을 고려할 때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목에 대한 해당 변수들에 의한 강조는 설명량을 통해서도 지지되고 있는데 .002에서 .172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델 4를 통해 학교관련 변수들이 투입되었는데, 학교 시설 및 환경과 학생의 학업성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학교관련 변수의 투입으로 교과 흥미도의 설명량이 크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업성취는 교과 흥미도에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개인특성 변수들의 영향력이 상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학업성취의 영향은 학업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교과목에 대한 흥미를 높게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의 집단별 차이분석을 통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표 5>는 학업성취 인식의 수준을 상, 중, 하의 집단으로 나누어 교과 흥미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보았는데, 학업성취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이 교과 흥미도도 있어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학업성취 집단에 따른 차이 분석

		N	M	S.D	F
흥미도	학업성취 하	472	22.2818	5.48875	457.304**
	학업성취 중	502	27.4502	3.94479	
	학업성취 상	412	31.4927	4.00941	

**p<.001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관계 변수들이 투입된 모델 5의 경우 부모시간공유와 부모압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그 외 부모인지, 부모기대의 경우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특별히 부모압력의 경우 부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지나친 부모의 강요와 압력의 경우 오히려 학생들의 교과목에 대한 흥미도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부모와의 기능적인 시간 공유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과 관련된 흥미도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문계 고등학생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 1과 모델 2를 통해 교과목의 흥미도에 대한 성별, 부학력, 월평균소득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성별, 부학력은 인문계 고등학생의 교과 흥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결과와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의 대표적인 변인인 부학력의 영향력이 각 학교 집단의 차이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교과 흥미도에 있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인문계 고등학생 회귀분석 결과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상수	29.462** (.182)	25.161** (1.613)	8.889** (2.173)	2.000 (1.730)	1.727 (1.846)
성별	-.104** (.267)	-.117** (.327)	-.083* (.304)	-.054* (.237)	-.05* (.248)
가정배경					
부학력		.210** (.132)	.139** (.124)	.060* (.096)	.063* (.099)
월평균소득		-.007 (.297)	-.006 (.278)	-.013 (.214)	-.021 (.226)
개인특성					
자아인지			.177** (.080)	.044 (.063)	.031 (.067)
고민			.073* (.049)	.102** (.038)	.093** (.039)
수업태도			.285** (.053)	.046 (.045)	.036 (.047)
공부이유 및 포부			.085* (.029)	.007 (.023)	-.008 (.024)
학교 및 환경					
학교시설				.054* (.031)	.057* (.032)
교사				.045 (.039)	.045 (.040)
성취수준				.651** (.029)	.645** (.030)
부모관계					
부모인지					.000 (.090)
부모시간공유					.077* (.091)
부모기대					-.011 (.077)
부모압력					.013 (.078)
Adj. R square	.010	.054	.199	.524	.526

1) *p<.05, **p<.001 2) 제시된 값은 표준화 계수이며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개인특성과 관련된 모델 3에서 자아인지, 삶에 대한 고민, 수업태도 그리고 공부이유 및 포부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양상과 동일한 것으로, 전문계 및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교과 흥미도에 있어 학생들의 개인특성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교과 흥미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전문계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모델 4의 변수들이 투입되었을 때 학생 개인 특성의 영향력이 사라지며 그 설명량도 증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주요 변수에 있어서도 전문계 고등학생들과 동일하게 학교 시설 및 환경과 학생의 학업성취가 주요하게 영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인문계 고등학생들도 학업성취가 교과 흥미도에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모관계 변수들이 투입된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교과 흥미도 모델 5의 경우, 부모시간공유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그 외 부모인지, 부모 기대, 부모압력의 경우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부모압력의 영향력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교과 흥미도와 관련하여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IV. 나가며

이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자료를 활용하여 상급학교 진학으로 그 진로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교과 흥미도 결정에 대한 다양한 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부모관계에 집중하여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교과 흥미도와 관련된 맥락을 인문계 고등학생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교과 흥미도와 관련된 측면을 살펴보면 성별, 부학력, 월평균소득은 전문계 고등학생의 교과 흥미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성별, 부학력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측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겠다.

학생 개인수준 항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자아인지, 고민, 수업태도, 공부이유 및 포부 등의 변인의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이들 변인 모두 교과 흥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인문계 고등학생들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학교 특성에 따른 차이에 관계없이 고등학생들의 교과 흥미도는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을수록, 현재의 삶을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할수록,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그리고 분명한 학업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수록 높아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학교관련 변수들이 투입될 때, 전문계와 인문계 모두 개인 특성의 영향력은 상실되었지만 전체 독립변인들의 변량은 크게 증가되었다. 특히 전문계는 그 변량의 증가

폭이 38.3%로 인문계의 32.5%보다 컸으며, 학업성취가 교과 흥미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들의 교과 흥미도에 대한 학교 시설 및 환경과 학업성취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아울러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이들 변인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관계의 경우, 전문계에서는 부모시간공유와 부모압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인문계에서는 부모시간공유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또한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동조를 형성할 때 학생들의 성취를 높일 수 있다는 김두한(2005) 연구 결과나 그 외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성취가 높다는 선행연구들에 비추어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해본다면 전문계와 인문계 고등학생은 교과 흥미도에 있어 각 집단별 그리고 특정 항목에 따라 다소 차별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개인특성, 학교 환경과 학업성취 그리고 부모관계에 의해 주요하게 영향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내재적인 개인특성의 긍정적인 개발과 학교 환경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며, 아울러 부모들의 지혜로운 지원 전략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교과 흥미도를 기능적으로 높여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 참고문헌 ❖

- 김경식(1995). 공업고등학교 중퇴생의 특성 분석. *교육학논총* 14, 41-73.
- 김두한(2005). 교육목표의 관계적 동조(Alignment)와 학업성취: 지위획득 연구의 새 방향. *교육사회학연구*, 15(1), 43-64.
- 박종원(2010). 초등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쟁점에 대한 토론. *경북대학교 사범대학·교육대학원/대구교육대학교 공동 주최 학술대회 학교 교육과정의 개성 방안*.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 201호 2010.2.4.
- 윤미선(2007). 2요인 중다목표관점에 의한 성취목표지향성과 성별에 따른 중고생의 과학교과 흥미. *교육방법연구*, 19(1), 1-19.
- 이현철(2006). 공고생의 대학 진학의 의미와 한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동선(2009). 전문계 고등학생의 대학진학 계획 - 1차년도와 4차년도의 비교 -. 제4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09.2.24.
- Moos, R. H.(1973). Conceptualizations of human environments. *American Psychologists*, August, 652-665.
- Pomerantz, E. M., E. A. Moorman and S. D. Litwack(2007). The how, whom, and why of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lives: More is not always better.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7(3), 373-410.
- Portes, A.(2000). The two meanings of social capital. *Sociological Forum*, 15(1), 1-12.
-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 연설, 2010년 1월 4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 주간조선(2010). 취업률 19% 위기의 전문계고 마이스터고가 되살릴 수 있을까, 2010년 1월 18일.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12/2010011201040.html

❖ Abstract ❖

The Effect of Parental Relationship on the Subject Interest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Kim, Kyung-Sik

(Kyunpook National University)

Lee, Hyunchul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parental relationship on subject interest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by using a sample from KEEP(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vocational and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in subject interest. Also, there are differences among other independent variables.

Second, the impact factor of subject interest in vocational and academic students are students-, school- and parent-student relationship-related variables(for example sharing tim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ducational field and schools should have to improve the program for students to development the students' intrinsic characters and to enhance academic achievement and parent-student relationship.

Key words : subject interest, parent-student relationship,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